

■ 제주 마을-참여와 자치의 기록 <8> 변화를 만드는 마을- 구좌읍 세화리

조합원 477명 한뜻... “모두가 홍보대사”

세화마을협동조합 카페·오피스·마을투어 등 성과
로컬푸드 이용 음료·빵 만들고 판매하며 인기몰이

주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 마을을 바꾸고 있는 지역이 있다. ‘우리 마을이 잘 되기를’이란 마음으로 출발해 즐거운 성과를 내고 있는 제주 구좌읍 세화리이다.

세화리는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등 예산 86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마을 주민들이 모여 ‘우리 마을에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이어가며 마을 사업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들이 바라던 마을의 변화는 마을회관을 활성화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마을회관을 정비하고 증축해 세화종합복지타운을 만들었다. 세화종합복지타운은 세화리 마을 사업의 베이스캠프로 1층은 세화리 사무소와 마을 협동조합, 2층은 마을 카페, 3층은 공유 오피스, 4층은 마을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양근군 세화마을협동조합 PD는 “마을협동조합을 만들 때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 조언을 들었다”며 “세화리 6개 마을을 찾아다니며 설명회를 열고 독려해 477명이 참여해 주셨고, 2억6000만원의 출자금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세화종합복지타운 2층 마을 카페의 이름은 ‘477플러스’이다. 협동조합에 참여한 조합원 477명을 기념해 부지성 이장이 이름을 지었고, 플러스는 앞으로 가입할 조합원을 의미한다. 현재는 49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 협동조합 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한다.

마을 카페의 탄생은 주민들의 사랑방을 넘어 마을 활력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주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해 커피를 즐기게 됐고 지역에 유명한 당근으로 주스를 만들고 마늘·무화과 등을 이용한 쌀빵을 만들며 지역 농산물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결제하면 다음날 아침 집으로 배송하는 로컬푸드 판매 시스템을 통해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는 마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 사업을 추진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은 세화리 로컬 푸드 판매장. 김도영기자

세척 당근과 당근 주스를 공급, 수익을 내고 있다. 협동조합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자녀들이 카페 직원으로 일하게 돼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역 주민을 해설사로 양성해 ‘해녀 투어’와 ‘다랑쉬 투어’ 등 세화 마을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해녀 투어는 세화리 해녀들과 함께 태약을 만져보고 불턱을 체험하는 등 풍성한 경험을 전달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랑쉬 투어는 3.4km의 돌레길을 돌며 요가·명상·다도 체험과 함께 주민에게 듣는 오름 식재 해설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위케이션 열풍에 발맞춰 운영 중인 공유오피스도 주목받고 있다.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고자 하는 이들이 발길이 이어지며 세화종합복지타운 공유오피스가 제주 위케이션의 성지로 부상하고 있다.

양 PD는 “코로나19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을 사업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올해는 조합원분들께 쌀 한 포대씩이라도 돌려 드린다는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며 “마을 분들이 직접 홍보대사를 자청하며 세화를 알리고 협동조합을 소개하시는 등 변화된 세화에서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오영훈 지사 ‘예산·현안 절충’ 본격

15일 제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19일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국회의원들과 취임 후 첫 정책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관련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오는 15일 제주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의원과 간담회를 갖는다.

오 지사가 취임 후 제주 국회의원들과 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송재호·위성곤 의원과 함께 국회 의정활동을 했던 오 지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조금이라도 제주 현안과

예산이 국회에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위 의원과는 20·21대 국회에서, 송 의원과는 21대 국회에서 한 술 밥을 먹었다. 김 의원은 보궐선거를 통해 오 지사의 지역구인 제주시를 지역구를 이어받았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오 지사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한 조언도 가감없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지사는 오는 19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만나 제주 현안과 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 지사는 야당 소속 도지사로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제주 현안에 대한 여당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부미현기자



마침내 장맛비 긴 기다림 끝에 장맛비가 내린 11일 오전 제주시 애초로에서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며 운행하고 있다. 김희만기자

‘섬 속의 섬’ 추자도 꽃섬으로 바뀐다

10억원 투입 도서종합계획 사업

‘섬 속의 섬’ 추자도가 꽃섬으로 바뀐다. 추자면은 2022년도 도서종합개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추자도 꽃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투입 예산은 총 10억원이다. 2개년에 걸쳐 주요 관광지, 마을 안길, 올레길 등에 정원과 꽃길을 조성해 주변 환경 개선과 추자도 방문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2022년도 1차 꽃섬 프로젝트는 7월부터 상·하 추자도 12개소에 교목(224주), 관목(9800주), 초화류(5800본)를 심고 파종(8만226㎡)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뒀다. 특히 묵리와 신양리 일대에 주민들이 도심지로 떠나면서 방치되고 황폐화된 농지를 개간해 꽃양귀비 등 계절화를 식재하는 등 대규모 꽃밭을 조성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서귀포 문화광장 저류지 상류로 옮긴다

도심 안전문제·하류보호 차원
기존 시설 포함 저류용량 확대

서귀포시 문화광장 내에 들어설 예정이던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이 동홍천 상류로 위치가 변경될 전망이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인 문화광장 인근의 안전 문제와 예산 부담, 저류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존의 상류(남주교 인근)에 있는 저류지의 용량(7만t 규모)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당초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만1000㎡ 규모로 동홍천 북계구간(213m)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하천 범람 등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구도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221억원(국비 50%)을 투입해 옛 서귀포시민회관 일원의 문화광장에 우수저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후 이뤄진 용역과정에서 저류지 역할의 효과적 측면과 지하 터파기 토목공사

등에 따른 예산 추가에 대한 부담 해소,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인 문화광장 내에 박스형 저류지가 위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위치 변경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시는 기존의 문화광장 내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예산 3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저류 용량 부족으로 예방 효과도 상류지역 저류시설 확대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저류시설 예정지를 문화광장에서 동홍천 상

류로 위치를 변경하고, 저류용량도 기존 2만1000㎡에서 3만1400㎡로 1만400㎡(49.5%)가량 확대한다. 사업비도 기존 저류지를 활용함에 따라 토지 매입비 부담이 사라지며 기존 221억원에서 130억원으로 91억원(41.2%) 줄어든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부지는 188만1000㎡(5700평) 규모다.

시 관계자는 “문화광장 지하가 암반지대로 박스형 저류시설을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저류시설의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적 측면과 하류 보호 등 전문가·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저류시설 장소를 변경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을·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장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페르카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유효성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영양분력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장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밑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악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2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